

익명성 악용... 미성년자 노린 성매매 범죄 ‘기승’

미성년 조건만남 피해 연 700건
광주·전남 청소년 성매매 잇따라
성착취물 제작 등 2차범죄 우려
“빠른 신고 후 센터 도움 받아야”

전국적으로 SNS와 채팅앱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해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각종 SNS, 채팅앱 등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해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매매 범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신속한 수사와 적발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해외 기반의 한 SNS 앱 등에 접속해보니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를 찾는 게시글이 초 단위로 업로드 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의미하는 각종 은어와 키워드 등을 사용하며 담배와 금품 등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는 모습이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있는 17개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2021년 727명 △2022년 862명 △2023년 95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착취 피해경로는 2023년 피해아동·청소년 952명 중 채팅앱이 387명(40.7%), SNS는 367명(38.5%)으로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조건만남 피해가 7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를 보더라도 주변의 시선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부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30대 남성 C씨와 40대 남성 D씨 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역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 E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씨는 지난해 5월 담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간음한 뒤 돈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는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그루밍 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궁미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팀장은 “해외 기반의 앱 등을 이용한 범죄가 주를 이뤄 경찰의 단속·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SNS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이 약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아동기부터 실효성있게 이뤄지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면서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경우 빠른 신고와 함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여성폭력피해 지원 1366(여성긴급전화)과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062-227-8297),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061-810-1318)로 연락하면 익명 상담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추석 앞둔 성묘객 추석 연휴를 1주일 가량 앞둔 8일 광주 북구 시립묘지를 찾은 가족단위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일본 책임 물어야”

1945년 교토부 마이즈루 앞바다
의문 폭발로 침몰... 수천명 수몰

일본 정부가 최근 1945년 발생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승선자 명부를 공개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성명서를 내고 “79년 만의 승선자 명부 공개가 일본이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인 양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유골수습 및 봉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발생 후 79년 동안 승선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5일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승선자 명부 75건 중 우선 19건을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

우키시마호는 해방 직후인 지난 1945년 8월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부산을 향하다가 24일 교토

부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에 의해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승선 인원을 밝히지 않고, 승선자 3700여명 중 한국인 524명, 승조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이 배에는 강제 동원된 노무자 등 최소 7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 이상이 승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로 수천여명이 수몰됐다는 증언이 있었다. 일본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1950년 3월 선박 고철 회수를 위해 인양 작업에 나섰

고 1954년 인양작업을 완료하며 폭발 원인 규명 기회를 놓쳤다.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은 수송선에 오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보급을 끊을 것처럼 서둘러 조선인들에게 승선을 강요하고, 폭발 전 선장과 승조원들만 작은 배에 옮겨 타는 등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으로 광복 79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승선자 명부가 없다며 발뺌 해왔다. 승선자 명부

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게 됐고, 이번에 일부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이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도 없이 달랑 명부만 건넨 것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유골수습 및 봉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을 일본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던져주는 명부만 건네받고 끝낸다면, 정부가 강제동원 굴욕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이어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식,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